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AD MERMAIDS  
가제 : 나쁜 인어들  
저자 : Sibéal Pounder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272쪽  
장르 : YA 소설



- \* 소니 픽처스에 영화 판권 계약 / 세계 책의 날 기념 2019년 도서로 선정
- \* “빠르게 전개되는 줄거리 속에 인어들은 끊임 없이 머리를 빗는다는 이야기 같은 오랜 미신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환상적인 재미가 가득한 소설” - 「커커스 리뷰」
- \* “초대형 문어가 간지럼을 태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웃게 만드는 환상적이고 대담한 모험 이야기” - 소설가 데이빗 솔로몬(David Solomons)

왕자와 사랑에 빠진 가련한 바다 왕국의 공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어 이야기를 코믹하게 스릴러 요소도 가미하여 만든 시리즈가 완성됐다. 데뷔작 『Witch Wars』 시리즈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눈을 피해 바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던 인어 왕국을 침략한 적과 당당히 맞선 세 명의 용감한 인어들이 등장한다. 베아트리카와 쌍둥이 자매인 미미, 젤다는 신화와 전설로 전해진 인어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쾌활하고 스타일리시한 ‘현대판’ 인어로, 왕비를 끌어 내리고 불법적으로 왕좌를 차지한 못된 인어를 저지하고 사라진 진짜 인어 왕비를 찾기 위해 험난한 모험을 떠난다. 짧게는 한 페이지에 불과한 짤막한 장들로 구성되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개성 넘치는 흑백 삽화에 세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 바닷속 왕국 풍경이 담겨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하는 참신한 판타지 시리즈다.

젊은 인어들이 자꾸 인간 세계를 동경하며 한 번만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꾸념하는 일이 잦아지자, 인어 왕국에서는 오래 전 큰 결단을 내렸다. 여름이 되면 두세 달 정도 물 밖으로 나가 인간의 다리와 발을 갖고 살아볼 수 있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막상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대신 가느다란 두 다리로 살다 보면 ‘요상하게’ 큰 엄지발가락이 영 거슬리기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를 만나도 인어 지느러미로 헤엄칠 때처럼 손살갈이 달아날 수 없어 잡아 먹히고 마는 비극적인 사고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짧은 체험을 끝으로 인어 생활을 만족하게 된다. 절친한 친구인 베아트리카와 미미, 젤다도 올해 꿈에 그리던 그 체험 기회를 얻게 되어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에 당당히 나섰다. 발톱에 형형색색 매니큐

어도 칠하고, 북적대는 피서객들 틈에서 핫도그를 사 먹기도 하면서 다리를 갖고 사는 건 어떤 기분인지 한창 만끽 중이던 세 사람은 잠시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급히 배달 온 편지를 전달 받는다. 바다 왕국의 우편배달부, 게가 가지고 온 편지였다. 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조개 신문’ 등 바닷속 시민이라면 누구나 읽는 소식지는 계속 받아보고 있었는데, 이번 편지는 뭔가 달랐다. 베아트리체는 편지를 펴자마자 발신자가 아라벨라 코드라는 사실을 알고 단번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아라벨라는 현재 인어 왕국의 여왕인데, 한낱 어린 인어인 세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첫 장에 이미 아라벨라의 의중이 모두 나와 있었다. 물로 휴가를 나온 지 2주 밖에 안 된 세 사람에게 자정이 되기 전 열린 바닷속으로 복귀하라는 엄한 지시가 적혀 있었다. 이번 해 체험 프로그램은 사정상 일찍 끝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못된 인어가 공격을 해 왔으며 이를 막을 사람은 너희 세 명 뿐’이라는 절박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편지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는 말로 쫓기듯 끝나버린 것도 너무 짝짝했다. 게다가 인어들이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오징어 먹물 잉크가 아닌, 인간이 쓰는 펜 잉크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아라벨라는 왕궁에 당장 돌아오되 정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수백, 수천 년부터 오직 인어들만 아는 비밀 통로로 몰래 들어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조개더미 깊숙이 숨겨진 판을 찾아 길고 복잡한 암호를 직접 입력해야만 문이 열리는 통로, 바닷속에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살면서도 여태 호기심 많은 인간들의 레이더 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도록 인어들을 보호해준 그 비밀의 문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대체 바다 왕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휴가가 너무 빨리 끝난 건 불만스러웠지만 서둘러 바다로 향한 세 인어는 암기 시험을 몇 번이나 쳤지만 쓸 일이 없어 헛갈리는 통과 암호를 겨우 떠올리고 왕궁에 들어선다. 그러나 인어들이 입는 조개 옷을 판매하는 옷 가게 친구와 맞닥뜨린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스스로를 ‘더 스완’이라 칭하는 인어가 아라벨라를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겨둔 다음 왕비 노릇을 시작했는데, 온 나라의 옷 짓는 인어들에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조개 상의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새 왕비가 요구한 옷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몇 안 되는 재봉 인어들은 벌써 수일 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 없이 그 물량을 채우느라 바쁘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베아트리체, 미미, 젤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정돈되어 있던 왕궁에 출입이 금지된 피라냐 떼가 득시글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또 다시 깜짝 놀란다. 왜 사라진 아라벨라는 세 친구에게 ‘이 사태를 해결할 인어는 너희들 밖에 없다’고 했을까? 새 여왕의 취임식 날 우연한 사고로 세 인어가 가진 놀라운 마법 능력이 드러나고, 셋은 조개 자동차를 훔쳐 행방이 묘연한 진짜 왕비를 찾아 나선다.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이야기가 가득한 매력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시빌 파운더(Sibéal Pounder)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칼럼을 쓰다가 작가로 데뷔했다. 2015년에 발표한 데뷔작 『Witch Wars』 시리즈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11만 2,000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워터스톤스 도서상, 세인스버리 아동도서 상 결승에 올랐다.

제목 : THE PECULIAR PEGGS OF RIDDLING WOODS

가제 : 수수께끼의 숲에 사는 페그스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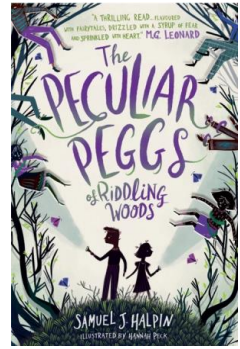
저자 : Samuel J. Halpin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pre-empt로 프랑스, 스웨덴 판권 계약

\* “동화와 함께 무서운 이야기와 따뜻한 이야기가 살짝 가미된 스릴 넘치는 이야기” – M.G. 레오나드 (M.G. Leonard)

\* “달콤하고 어두운 동화” – 『골드피쉬보이』의 작가, 리사 톰슨

아빠가 멀리 출장을 떠난 바람에 돌봐줄 사람 없이 여름 방학을 맞이한 파피는 태어나 딱 한 번 밖에 가본 적 없는 외할머니 댁으로 향한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 서드는 재미 있는 일이라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곳이지만, 파피는 이곳에서 어느 곳에도 듣지 못한 희한한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할머니의 당부에 어안이 병병해진다. 빨래를 하고 밖에서 널었다면 저녁 6시 전에 반드시 다 거뒀어야 한다는 것(빨래가 다 마르지 않아도 예외는 없다), 설탕은 자물쇠가 달린 찬장 안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는 사용할 양만 얼른 꺼내서 바로 써야 한다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창문을 모두 닫고 걸어 잠근 다음 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 할머니가 파피에게 첫날 일일이 종이에 써서 알려준 규칙이었다. 대체 이 요상한 규칙은 누가, 왜 정한 것일까? 궁금해하던 파피는 우연히 친구가 생기면서 서드의 오랜 비밀에 가까이 다가간다.

11개월 전 사고로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부터 파피는 조금만 놀라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대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꽤 오래 전부터 짓궂은 몇몇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꼭 참아 왔던 것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대는 원인이 된 것 같았다. 할머니 댁으로 향하던 날, 집과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고 숲과 나무가 점점 더 빼곡해지는 창 밖 풍경을 보면서 이유 없이 두근대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던 파피는 건너 칸에서 넘어온 나이 많은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생김새보다 치렁치렁한 옷차림이 어딘가 독특한 그 여자는 멍하니 자신을 응시하는 파피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옷과 똑같은 초록색 큼직한 주머니를 꺼냈다. 서드에 도착해서 서둘러 내릴 준비를 하던 파피는 그 여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주머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거나 역에다 맡길 생각으로 얼른 집어 가방에 넣고 기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애완 동물로 키우는 미니어처 돼지 처칠과 함께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파피는 너무 기뻐서 그 주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서야 주인 잃은 주머니를 다시 떠올린

파피는 기차에서 만난 여자의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 속을 뒤지다가 희한한 책 한 권을 발견한다. 잘 구운 토스트 한 쪽 만한 크기의 꽤 두툼한 책이었는데, 펼쳐보니 백지만 가득했다. 텅 빈 페이지 속에 할머니가 신신당부한 서드의 규칙과 관련된 비밀을 풀 단서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평생을 재봉사로 일해 온 할머니는 파피가 서드에 온 첫 날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할머니가 서드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영국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옷감을 오직 서드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옷을 만들고 고치는 할머니로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서드 한 켠에 자리한 강가 근처에 헬리건 밀스라는 방직 공장이 아주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어떤 기술로 옷감을 만드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인근 옷 가게며 천이 필요한 곳에서 주문을 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치수와 수량의 옷감이 일주일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배달이 된다고 할머니는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이 헬리건 밀스의 비밀은 설탕 통을 꽂고 숨기고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서드의 규칙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리가 쭉시고 아파서 병원을 찾은 할머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기차에서 주문 초록색 주머니에서 발견한 책을 들여다보던 파피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소년이 자신을 뚫어쳐라 바라보는 것을 느낀다. 또래로 보이는 그 아이는 냉큼 파피에게 다가오더니, 비어 있는 페이지마다 누군가 식초로 글을 써 놓았으며 열을 가해야 글씨를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낡고 오래된 물건만 가득한 할머니 집에는 헤어드라이어도 없어서 오븐에 책을 통째로 넣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크게 실망한 파피는 불쑥 집 앞까지 찾아온 그 남자아이 덕분에 양 손바닥을 열심히 비벼 종이에 대한 방법으로 마침내 누군가 암호처럼 남겨놓은 글을 읽는다. ‘페그스’와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창문과 설탕 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페그스는 누구일까? 에라무스라는 이름의 소년과 친구가 된 파피는 이상한 규칙의 원인이 된 페그스의 존재를 직접 밝히기로 결심하고, 서드에만 45년 넘게 살았던 할머니도 알지 못하는 헬리건 밀스의 옷들이 페그스와 관련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할머니가 서드에 온 바로 다음 해부터 시작된 의문의 어린이 실종 사건도 이 미스터리한 노트에 적힌 페그스라는 존재와 연관성이 있을까? 어느 날부터 눈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머리카락도 색이 흐려지다 못해 백발처럼 변해버린 아이들, 그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서드의 괴상한 실종 사건과 세계적인 품질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헬리건 밀스는 무슨 관계일까? 파피와 에라무스는 마을을 빙 둘러싼 시커먼 숲에 페그스에 관한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지만, ‘수수께기의 숲’이라 불릴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숲에 정말로 발을 들일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이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조용히 이어지고 어딘가 음침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깔려 있지만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 이상한 현상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두 친구의 용감한 도전이 새로운 빛을 더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새뮤얼 J. 할핀(Samuel J. Halpin)은 아일랜드 계 혈통으로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태어나 현재 런던에서 아동 소설을 쓰고 있다.